

2008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37

그들의 현재—신성한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신성한 변화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림
(1)

성경: 고후 3:18, 롬 8:28-29, 12:2, 빌 3:10, 히 10:19-20, 벧전 2:21

- I.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대체하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가 더해지시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감소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요소가 더해짐으로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옛 요소를 배출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신성하고 영적인 신진대사이다—**고후 3:18, 롬 12:2, 갈 6:15, 요 3:30, 골 2:19.**
- A.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생활이다.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꽃핀’ 것이다—**고후 3:18-4:1, 16-18, 요 12:23-24, 17:1, 눅 24:26.**
1.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더 훈련해야 한다—**고후 3:17, 시 71:14, 잠 4:18-23, 사 5:31, 마 13:43.**
 2.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각은 의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워져야 한다—**롬 12:2, 8:6, 참조 7:25.**
 3.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변화되고 있다.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져 생각을 적시고, 점유하고,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지배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정과 의지에서 새롭게 되는데, 그것은 생각이 감정을 조절하고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엡 4:23.**
- B.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된 결과, 믿는이들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들—**금, 은, 보석들—**이 된다—**고전 3:9-12, 시 68:11-13, 19-20.**
1. 금, 은, 보석들은 다양한 체험들과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금인 신성한 본성 안의 아버지 하나님, 은인 구속 안의 아들 하나님, 보석들인 변화시키는 일 안의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전 3:12 상.**
 2. 변화는 추구하는 믿는이들 안으로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넣어 그들의 미덕들이 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한 변화는 오직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하는 몇몇 온전케 하는 이들, ‘변화시키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아 1:10-11, 엡 4:11-12.**
 3. 열과 압력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말하는 실행을 통해,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흐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빌 2:5, 4:6, 요 3:15, 벧후 1:4, 엡 3:16-21.**
- II.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되어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받아들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목적지이다—**롬 8:28-29, 참조 렘 48:11.**

- A. 변화는 내적인 것이고 신진대사적으로 모습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나, 같은 형상을 이룸은 외적인 것이고 생명의 형태 지어짐, 즉 우리를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태, 형, 형상으로 형태 짓는 것을 말한다.
- B.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외양을 지니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자아 모양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 모양에서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만아들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롬 5:10.
- C. 우리는 현재 성숙되는 과정, 즉 하나님의 표현을 회복하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 실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히 6:1 상, 2:1, 3, 10-11.
- D. 이에 관해 우리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한 가지만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형태 짓는 신성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생명에 대한 더 충분한 체험이다—롬 8:2, 6, 10-11.

I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빌 3:10, 요 12:23-26, 31-32, 14:20, 30, 23.

-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분이 통과하신 것은 다 우리의 역사이다—갈 3:27, 고전 1:30.
- B.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6 장 6 절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이상 안에서 사실을 보는 것을 말한다.
- C.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타락한 타고난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반드시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 존재의 표현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갈 5:16, 24.
- D.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지속적인 매일의 훈련이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육체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함으로 주님과 협력하는 것을 요한다. 우리는 강한 결심을 하고,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섭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제가 더이상 습관적으로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저의 타고난 생명의 모든 습관을 제쳐 놓게 하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롬 8:13, 딤펴전 4:7, 빌 1:21 상.
- E. 우리는 우리의 삶의 틀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을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기 위해 그분의 인간 생명을 계속 죽음에 넣으신 것을 말한다—요 5:19, 30, 6:57, 사 7:14-15.
- F. 우리는 그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기 위해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해 죽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자기 성찰에서 구출된다—아 2: 9, 14.
- G.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전 15:31.
- H.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생명, 우리의 옛 사람을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이다—마 16:24.
- I.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와 하나이며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다—갈 6:17, 참조 계 21:21.

- J.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혼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진정한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 안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여 그분이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게 할 때 오직 성령의 교통 안에서 이뤄진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서 살 때 보는 것이 참된 봄이고, 그 때 우리의 체험이 참된 체험이다—고후 13:14, 시 43:4 상, 요 16:13.
- K. 믿는 이들이 그들의 혼 생명을 잃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 더욱 그들 자신의 혼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여 그들의 혼이 오는 시대에 시대적인 형벌에서 구원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마 10:37-39, 눅 14:26, 뱀전 1:9, 마 25:30, 24:51, 히 10:39.

IV.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신성한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신성한 변화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히 10:19-20, 뱀전 2:21.

- A. 오늘날 지성소는 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지금 또한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이시며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만져 철저히 하나님으로 주입되어 하나님과 연결된다—히 9:12, 24, 4:16, 창 28:10-12, 17, 요 1:51, 엡 2:22, 딤후 4:22.
- B. 우리가 은혜의 보좌, 즉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임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공허이신 그분을 받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딱 맞는 때 맞춘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이신 그분을 얻는다—히 4:16.
- C. 베드로가 어떠한 종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지적하신 후에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요 21:19.
 - 1. 우리가 따르는 ‘나’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을 따라야 한다—18 절, 롬 8:14.
 - 2.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관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일어날 일은 베드로와 상관이 없으니 다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요 21:20-22.
- D. 주님을 따르는 것은 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히 6:19-20, 13:13, 출 33:7-11, 14.
 - 1.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영광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영,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이 배척받고 버림 당하신 종교 밖으로 가는 것이다—참조 뱀전 2:21.
 - 2.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회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맛보아 진영 밖으로 나가 땅을 버리고 땅의 사랑을 버릴 수 있다.
 - 3.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을수록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더욱더 종교라는 진영 밖으로 나가,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 4. 회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우리의 영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귀결되는 감추인 만나, 썩난 막대기, 생명물이신 그분을 누린다—히 9:3-4.